정읍시, 원도심 재생으로 지역사회 활력 올인

쌍화차 거리·패션 거리·우암태평로 등 명품 거리 조성 박차
250억원 투입 정읍 시니어센터 개관…도심관광 육성 집중

원도심 리모델링 사업으로 장명동 쌍화차 거리가 활력을 찾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 불어넣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내 쌍화차 거리와 새암길, 우암태평로 등의 명품 거리 조성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쌍화차 거리의 전선 지중화와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됐으며 '빛과 청년 창업의 거리'를 테마로 하는 우암태평로도 보도와 차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패션의 거리 새암길'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

시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도심 상권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특화산업과 연계한 도심 관광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원도심 내 주요 상권과 샘고을 시장을 아우르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다.

총 250억원이 투입돼 지난 9월 옛 시기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정읍 시니어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4대 특화산업(떡·차·면·술)을 조직화·고도화 해 특화된 지역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려 관광객의 도심 체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정읍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정비와 도시재생사업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국·도비 등 총 422억원이 투입돼 청년 꿈터 조성사업 등 총 31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특화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설치, 연지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앙로 살리기 등을 통해 서남권 중심상권 회복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일과 육아를 꿈꾸는 행복한 삶터 구현에 집중한다.

2019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주거지지원형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 실현,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특화 마을 조성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4050 청춘 활력소 설치, 여성 친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각시다리' 소규모 재생도 펼친다.

2019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장명지구 소규모 재생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된다.

'가치 있는 우리 마을! 같이 사는 우리 마을!'로 명명된 이 사업은 각시다리 설화와 지역 내 산재한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가 있는 특화 골목길 조성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원도심은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시민 생활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도시재생사업의 키워드로 삼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종합업적평가대회' 장려상

장학수 조합장 '우수금융인상'

정읍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하반기 산림조합 금융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기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학수〈사진 오른쪽〉 정읍산림조합장이 개인부문에서 '우수금융인상'을 수상하며 취임 9개월만에 모범적인 산림조합장으로서 저력을 보여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7월~11월) 동안 수익성과 성장성, 건전성, 생산성 부문의 실적을 평가하는 금융 종합업적평가(전국산림조합 142개 조합 중 상호금융 취급 137개 조합 참여)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읍산림조합은 장 조합장 취임 이후 적자였던 4개의 임산물유통센터 사업장 중 2곳을 흑자로 전환했고 나머지 사업장의 적자폭도 대폭 줄였다.

또 임산물유통센터의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과 금융사업의 호조로 2019년 전체결산손익은 흑자로 마감할 전망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양성평등 이야기 '혜윰터 1호점' 현판식

고창군 여성 모두가 편히 찾아와 양성평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군여성회관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 동아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 공간 '혜윰터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혜윰'은 '생각'의 순 우리말로 '혜윰터 1호점, 톡톡울림방'은 열린 마음으로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등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공간이다.

5평 정도의 '톡톡울림방'에는 양성평등과 여성 관련 도서 40권이 비치됐고, 의견을 서로 공유·토론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아늑하게 꾸며졌다.

한편 고창군은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난 16일 '2019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다음달 20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 오픈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었다.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최영일 전북도의원 등 내빈과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다가온(ON)'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사진〉

이 곳은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3층에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요리공간, 자조 모임 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는 공간도 조성됐다. 앞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별 자조 모임,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고창군수는 "다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여러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족의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건강 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익산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여 가정에 '인센티브'

익산시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올해 상반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한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 중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감축률이 5% 이상인 3466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가입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존 사용량보다 5% 이상 적게 사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연간 약 1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탄소포인트 가입시 나무심기 기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기부 희망자 299가구는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약 870만원을 기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보건소, 전북도 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전라북도 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남원시는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문자, 우편, 유선 연락 등 1대 1 맞춤 안내를 비롯해 부족한 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아왔다.

초·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과 만12세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 등 모든 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률을 높였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감염병 분야 예방접종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소방서, 인명피해 재발방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완료

군산소방서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년 6개월에 걸쳐 시행한 특별조사는 관내 42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서는 6개반 18명의 조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소방·건축·전기·가스·위험물 총 5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세부 조사를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1단계는 1314개소를 조사해 불량대상 913개소에 적발해 자진개선 조치하였으며, 자진개선 미이행 대상물 142개소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2단계(2019년 1~12월)에서는 2899개소를 조사하여 불량대상 1900개소에 대해 자진개선 조치하고, 자진개선 미이행 대상물 91개소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7건은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